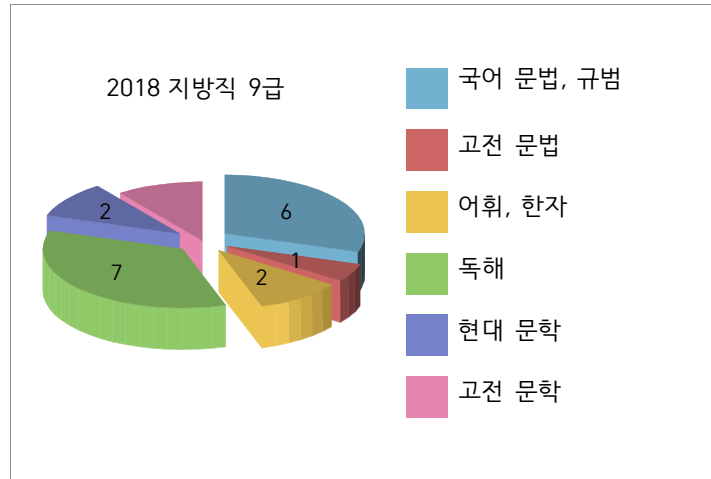


2018 지방직 9급: 2018. 5. 19. 시행

수험생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의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 문제와 자세한 해설을 함께 올려 드립니다.
해설 강의는 5월 19일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이후 공단기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018 지방직 9급



지식형 문항 (9)	국어 문법 국어 규범 (6)	통사론 (1) 의미론 (1) 담화론 (1) 한글맞춤법 (1) 띄어쓰기 (1) 올바른 문장 쓰기 (1)
	고전 문법 (1)	훈민정음 제자원리 (1)
	어휘·한자 (2)	한자 (1) 한자성어 (1)
수능형 (지문 분석형) 문항 (11)	독해 (7)	내용의 사실적 이해 (3) 사실적 이해/추론 (2) 단락 배열 (1) 조건에 맞게 글 쓰기 (1)
	현대 문학 (2)	현대시 (1) 현대소설 (1)
	고전 문학 (2)	가전체 (1) 고전 시가 (1)

★총평

이번 지방직 9급 시험은 예년 시험에 비해 난도가 높아져서 전반적으로 합격점이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시험의 난도가 높아진 이유로는 첫째, 지문이 다소 길어져 시험지의 양이 4쪽으로 늘어났다는 점, 둘째, 일부 문제의 난도가 높아져 시간 배분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 셋째, 국어의 전 영역이 고루 출제되어 전체적인 학습을 하지 않으면 고득점을 하기 힘들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올해 시험은 지식형 문제가 9문항, 수능형(지문 분석형) 문제가 11문항이 출제되어, 예년과 영역별 출제 경향이 비슷했다. 그러나 문법, 한자, 독해, 문학 등의 전 영역에서 고루 문제가 출제되었다는 것, 그리고 비문학 독해의 일부 문제가 길어도 길어지고 난도가 높아졌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또한 한자는 2문항이 출제되었으나 어휘 영역과 표준어, 외래어 등을 비롯한 단순 규범 암기 내용이 출제되지 않았다는 점도 이번 시험의 특성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문법과 규범은 총 6문, 독해는 총 7문이 출제되었다. 문법은 중간 정도의 난도를 유지하여 충실히 학습을 한 학생들이라면 큰 어려움 없이 풀 수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띄어쓰기의 난도가 국가직에 비해 높았으나, 과거 지방직 문법이 워낙 난도가 높았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번 문법의 난도는 중간 정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총 7문항이 출제된 비문학은 지문이 다소 길어졌을 뿐더러, 단락 배열 등을 비롯한 일부 문제의 난도 역시 높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가장 크게 어려움을 느꼈을 것이다. 지문이 길어지고 일부 문제의 난도가 높아지면서, 결국 시간이 부족하게 된 학생들이 꽤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한자 영역에서는 생활 한자와 한자 성어 2문항이 출제되었는데, 한자는 중급 정도였으나 한자 성어 문제 난도가 높았다. 이에 비해 현대 문학과 고전 문학은 무난하게 출제되어 다양한 문제를 접한 학생들이 큰 어려움 없이 문제를 풀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전 영역을 고루 학습한 학생 및 비문학을 다소 어렵게 연습하여 시간 배분에 성공한 학생이 좋은 점수를 거둘 수 있었던 시험이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 어떠한 학습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인가.

무엇보다 지식형과 수능형 모두 적절하게 시간을 투자하여 실력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 전체적인 문항 비율은 항상 비슷했으므로, 어느 한 쪽만 잘하는 수험생은 고득점을 얻기 힘들다. 따라서 항상 문법과 지문 분석 문제를 함께 학습하여 양쪽의 균형을 맞추면서 학습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올해 국가직부터 서서히 비문학의 지문이 길어지고 난도가 높은 문제도 출제되고 있다. 따라서 비문학 독해에 특히 신경을 쓰라고 권하고 싶다. 비문학은 단기간에 점수를 올리기 힘든 영역이다. 독해의 핵심 기술을 확실히 익히고 꾸준히 지문을 분석하는 연습을 할 때만이, 시험장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이를 위해 선재국어의 모든 수업 과정에서 제공되는 <독해야 산다>를 꾸준히 풀어서, 비문학 문제에 대비하는 연습을 평소에 꾸준히 해 두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결국은 시간 내에 문제를 속도감 있게 푸는 훈련이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나침판 2에서 훈련했던 것처럼, 항상 타이머를 켜 두고 긴장감 있게 문제를 푸는 훈련을 꾸준히 하자. 또한 실제 시험보다 약간 난도가 높은 문제를 풀 것을 권하고 싶다. 그러한 문제를 집중력 있게 푸는 훈련을 꾸준히 해야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력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력을 발휘하는 것도 중요하다. 열심히 공부한 모든 수험생들이 자신의 실력을 충실히 발휘했기를, 그리하여 합격의 영광을 누리는 순간이 곧 오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한다. 또한 앞으로의 시험을 대비하는 학생들은 전략을 올바르게 세워, 다시 한번 힘을 내서 합격을 향해 힘차게 뛰기를 바란다.

- 수험생 여러분,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적중

문제 번호	유형	적중 내용
2	문법: 통사론	2018 선재국어1권 112~113쪽, 249쪽, 389쪽 2018 선재국어 한 권으로 정리하는 마무리 48쪽
4	현대 문학: 현대 시	2018 나침판 실전 모의고사 vol.2 18회 8번 2018 선재국어 3권 55쪽
5	고전 소설: 가전체	2018 선재국어 3권 302쪽
9	한자 성어	2018 선재국어 3권 330쪽
10	한자어	2018 선재국어 한 권으로 정리하는 마무리 158쪽 2018 약점 체크 반쪽 모의고사 어휘 한자모의고사 18회 5번
11	독해	2018 나침판 실전 모의고사 vol. 2. 3회 5번
13	문법: 담화론	2018 나침판 실전 모의고사 vol.2 14회 4번 2018 선재국어 1권 p.212 & 한 권으로 정리하는 마무리 p.102 2018 나침판 실전 모의고사 vol. 2 3회 13번 보충 문제
14	규범: 띄어쓰기	선재국어 1권 p.211
15	규범: 올바른 문장 쓰기	2018 선재국어 1권 400쪽 단원 알짜 정리 19번 2018 선재국어 1권 401쪽 단원 알짜 정리 22번
16	규범: 한글 맞춤법	2018 약점 체크 반쪽 모의고사 9회 7번 & 7번 보충 문제
19	말과 글: 쓰기	2018 나침판 실전 모의고사 vol. 2 16회 4번(유형 일치)

1. 밑줄 친 부분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은?

지도 위에 손가락을 짚어 가며 여행 계획을 설명하였다.

- ① 이마를 짚어 보니 열이 있었다.
- ② 그는 두 손으로 땅을 짚어야 했다.
- ③ 그들은 속을 짚어낼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다.
- ④ 시험 문제를 짚어 주었는데도 성적이 좋지 않다.

정답 ④

해설 <보기>의 ‘짚어’는 ‘여럿 중에 하나를 꼭 집어 가리키다’의 의미로 쓰인 것이다. 이와 가장 유사한 의미로 쓰인 것은 ④이다.

- 오답 풀이 ① 손으로 이마나 머리 따위를 가볍게 눌러 대다.
② 바닥이나 벽, 지팡이 따위에 몸을 의지하다.
③ 상황을 헤아려 어떠한 것으로 짐작하다.

2. 사동법의 특징을 고려할 때 밑줄 친 단어의 쓰임이 옳은 것은?

- ① 그는 김 교수에게 박 군을 소개시켰다.
- ② 돌아오는 길이 병원에 들러 아이를 입원시켰다.
- ③ 생각이 다른 타인을 설득시킨다는 건 참 힘든 일이다.
- ④ 우리는 토론을 거쳐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시킨다.

정답 ②

해설 ‘-시키다’를 ‘-하다’로 바꾸어도 의미의 변화가 없으면 과도한 사동 표현으로 본다. ‘소개하다’ ‘설득하다’ ‘해소하다’는 ‘-하다’를 그대로 써도 의미의 변화가 없으므로 무리하게 ‘-시키다’를 결합하지 않는다. 그러나 ‘입원하다’는 아이가 스스로 입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입원하게 하는 것이므로 ‘입원시키다’처럼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3. 밑줄 친 부분의 이유에 대한 필자의 견해로 볼 수 없는 것은?

관리가 본디부터 간악한 것이 아니다. 그들을 간악하게 만드는 것은 법이다. 간악함이 생기는 이유는 이루 다 열거할 수 없다. 대체로 직책은 하찮은데도 재주가 넘치면 간악하게 되며, 지위는 낮은데도 아는 것이 많으면 간악하게 되며, 노력을 조금 들였는데도 효과가 신속하면 간악하게 되며, 자신은 그 자리에 오랫동안 있는데 자신을 감독하는 사람이 자주 교체되면 간악하게 되며, 자신을 감독하는 사람의 행동이 또한 정도에서 나오지 않으면 간악하게 되며, 아래에 자신의 무리는 많은데윗사람이 외롭고 어리석으면 간악하게 되며,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이 자신보다 약하여 두려워하면서 잘못을 밝히지 않으면 간악하게 되며, 자신이 꺼리는 사람이 같이 죄를 범하였는데도 서로 버티면서 죄를 밝히지 않으면 간악하게 되며, 형벌에 원칙이 없고 염치가 확립되지 않으면 간악하게 된다. …… 간악함이 일어난기 쉬운 것이 대체로 이러하다.

- ① 노력은 적게 들이고 성과를 빨리 얻는다.
- ② 자신이 범한 과오를 감추고 남의 잘못을 드러낸다.
- ③ 자신은 같은 자리에 있으나 감독자가 자주 교체된다.
- ④ 자신의 세력이 밑에서 강한 반면 상부는 외롭고 우매하다.

정답 ②

해설 필자는 관리들이 간악하게 되는 이유를 나열하고 있다. ②를 언급한 내용은 없으므로 ②가 정답이다.

*“자신이 꺼리는 사람이 같이 죄를 범하였는데도 서로 버티면서 죄를 밝히지 않으면 간악하게 되며”는 같은 죄를 범한 관리들끼리는 자신의 죄도 상대방의 죄도 밝히지 않는 상태로 버티는 상황을 의미한다.

- 오답 풀이 ① “노력을 조금 들였는데도 효과가 신속하면 간악하게 되며”를 통해 알 수 있다.
③ “자신은 그 자리에 오랫동안 있는데 자신을 감독하는 사람이 자주 교체되면 간악하게 되며”를 통해 알 수 있다.
④ “아래에 자신의 무리는 많은데윗사람이 외롭고 어리석으면 간악하게 되며”를 통해 알 수 있다.

4. 다음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머언 산 청운사
넓은 기와집

산은 자하산
봄눈 녹으면

느릅나무 속잎 피어나는 열두 구비를

청노루 맑은 눈에

도는
구름

- 박목월, 〈청노루〉

- ① 묘사된 자연이 상상적, 허구적이다.
② 이상적 세계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다.
③ 시적 공간이 원경에서 근경으로 옮겨오고 있다.
④ 사건 발생의 시간적 순서에 따라 제재가 배열되고 있다.

정답 ④

해설 박목월의 〈청노루〉는 간결한 리듬과 압축적 표현을 통해 탈속적인 자연의 정취를 형상화한 시이다. 이 시는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이 이동하며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즉 ‘청운사’, ‘기와집’, ‘자하산’, ‘느릅나무’, ‘청노루’, ‘구름’ 등의 제재는 원경에서 근경으로 이동하는 화자의 시선에 따라 배열되고 있는 것이지, 사건 발생의 시간적 순서에 따라 배열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④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청운사’는 푸른 구름의 절, ‘자하산’은 자주빛 산, ‘청노루’는 푸른빛의 노루 등을 의미하므로 시에 묘사된 자연은 실제적, 사실적인 자연이 아니라 상상적, 허구적인 자연이다.

- ② ‘청운사’, ‘자하산’, ‘청노루’ 등과 같이 현실에는 없을 듯한 아름답고 평화로운 자연의 정취를 묘사함으로써 화자가 꿈꾸는 이상적 세계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③ 시적 공간이 “머언 산 청운사 / 넓은 기와집”의 원경에서 “청노루 / 맑은 눈에 // 도는 / 구름”의 근경으로 이동하고 있다.

5.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공방(孔方)의 자는 관지(貫之, 궤미)이다. …… 처음 황제(黃帝) 때에 뽑혀 쓰였으나, 성질이 굳세어 세상일에 그리 익숙하지 못하였다. 황제가 ㉡관상을 보는 사람(相工)을 불러 보이니, 그가 한참 동안 들여다보고 말했다. “산야(山野)의 성질이어서 비록 쓸 만하지 못하오나, 만일 만물을 조화하는 폐하의 풀무와 망치 사이에 놀아 때를 굽고 빛을 갈면 그 자질이 마땅히 점점 드러날 것입니다. ㉢왕자(王者)는 사람을 그릇(器)으로 만듭니다. 원컨대 ㉣폐하께서 저 완고한 구리(銅)와 함께 내버리지 마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그가 세상에 이름을 드러냈다.

- ① ㉠은 ㉢의 결정에 의해 세상에 이름이 드러나게 되었다.
② ㉡은 ㉠의 단점보다는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③ ㉠은 ㉡에게 자신의 견해를 펼칠 기회를 제공하였다.

④ ㉠은 ㉡의 이상적인 모습을 본받고 있다.

정답 ③

해설 제시된 작품은 임춘의 <공방전(孔方傳)>으로 돈을 의인화한 가전체 문학이다. ㉠ ‘관상을 보는 사람’에게 공방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펼칠 기회를 제공한 사람은 ㉡ ‘왕자’가 아니라 ㉢ ‘폐하’이다. ㉠은 일반적인 의미의 ‘임금’을 뜻한다.

오답 풀이 ① ㉢ ‘폐하’(황제)가 ㉠ ‘공방’을 버리지 말고 쓰라는 ㉠ ‘관상을 보는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여 “그가 세상에 이름을 드러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② ㉠ ‘관상을 보는 사람’이 ㉠ ‘공방’에 대해 “산야의 성질이어서 쓸 만하지 못하지만 폐하의 풀무와 망치 사이에 놀아 때를 굵고 빛을 갈며 그 자질이 마땅히 점점 드러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④ “왕자 된 이는 사람을 그릇으로 만듭니다”는 ‘임금이란 모든 것을 쓸모 있게 만드는 사람이다’라는 것으로, (일반적인) 임금의 이상적인 모습을 의미하는 말이다. ㉢ ‘폐하’(황제)는 ㉠ ‘공방’을 버리지 않고 쓸모 있게 만들었으므로, ㉢이 ㉡의 이상적인 모습을 본받았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6. 다음 글의 전개 순서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가) 생명체들은 본성적으로 감각을 갖고 태어나지만, 그들 가운데 일부의 경우에는 감각으로부터 기억에 생겨나지 않는 반면 일부의 경우에는 생겨난다. 그리고 그 때문에 후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생명체들은 기억 능력이 없는 것들보다 분별력과 학습력이 더 뛰어난데, 그중 소리를 듣는 능력이 없는 것들은 분별은 하지만 배움을 얻지는 못하고, 기억에 덧붙여 청각 능력이 있는 것들은 배움을 얻는다.

(나) 앞에서 말했듯이, 유경험자는 어떤 종류의 것이든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고, 기술자는 유경험자들보다 더 지혜로우며, 이론적인 지식들은 실천적인 것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러므로 지혜는 어떤 원리들과 원인들에 대한 학문적 인식임이 분명하다.

(다) 하지만 발견된 다양한 기술 가운데 어떤 것들은 필요 때문에, 어떤 것들은 여가의 삶을 위해서 있으니, 우리는 언제나 후자의 기술들을 발견한 사람들이 전자의 기술들을 발견한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그들이 가진 여러 가지 인식은 유용한 쓰임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런 종류의 모든 발견이 이미 이루어지고 난 뒤, 여가의 즐거움이나 필요, 그 어느 것에도 매이지 않는 학문들이 발견되었으니, 그 일은 사람들이 여가를 누렸던 여러 곳에서 가장 먼저 일어났다. 그러므로 이집트 지역에서 수학적인 기술들이 맨 처음 자리 잡았으니, 그곳에서는 제사장(祭司長) 가문이 여가의 삶을 허락받았기 때문이다.

(라) 인간 종족은 기술과 추론을 이용해서 살아간다. 인간의 경우에는 기억으로부터 경험이 생겨나는데, 그 까닭은 같은 일에 대한 여러 차례의 기억은 하나의 경험 능력을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험은 학문적인 인식이나 기술과 거의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학문적인 인식과 기술은 경험의 결과로서 사람들에게 생겨나는 것이다. 그 까닭은 폴로스가 말하듯 경험은 기술을 만들어 내지만, 무경험은 우연적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기술은 경험을 통해 안에 쌓인 여러 관념들로부터 비슷한 것들에 대해 하나의 일반적인 관념이 생겨날 때 생긴다.

① (가) - (다) - (나) - (라)

② (가) - (다) - (라) - (나)

③ (가) - (라) - (나) - (다)

④ (가) - (라) - (다) - (나)

정답 ④

해설 인간이 지혜를 갖게 되는 과정을 ‘감각 → 기억 → 경험 → 기술 → 학문적 인식(이론적 지식)’의 발전 순서로 설명한 글이다. 선택지 배열에서 (가)를 가장 앞에 둔 뒤, 연쇄적인 글의 흐름을 이해하여 문제를 풀어야 한다.

(가) 감각으로부터 기억이 생겨나는 생명체는 분별력과 학습력이 더 뛰어나다. → (라) 인간의 경우, 기억으로부터 경

험이 생겨나고 경험으로부터 학문적 인식과 기술이 생겨난다. → (다) 하지만 ‘필요’에 의한 기술이 모두 발견된 다음에야 ‘여가’를 위한 기술이 발견되므로 ‘수학’과 같은 학문적 인식(여가를 위한 기술)을 발견한 사람들이 더 지혜롭다. → (나) 앞에서 말했듯이, 감각을 가진 사람보다 경험을 가진 사람이, 경험을 가진 사람보다 기술자들이, (필요에 의한) 실천적 기술을 발견한 사람보다 (여가를 위한) 이론적 지식(학문적 인식)을 발견한 사람이 더 지혜롭다. 그러므로 지혜는 학문적인 인식임이 분명하다.

7. 다음 글에서 알 수 없는 것은?

되새김 동물은 무스(moose)의 경우, 위에서 음식물이 잘 소화되게 하려면 움직여서는 안 된다. 무스의 위는 네 개의 방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위에서 나뭇잎, 풀줄기, 잡초 같은 섬유질이 많은 먹이를 소화하려면 꼼짝 않고 한곳에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한편, 미국 남서부의 사막 지대에 사는 갈퀴발도마뱀은 모래 위로 눈만 뺨뿔 내놓고 몇 시간 동안이나 움직이지 않는다. 그렇게 있으면 따뜻한 모래가 도마뱀의 기운을 복돋아 준다. 곤충이 지나가면 도마뱀이 모래에서 나가 잡아먹을 수 있도록 에너지를 충전해 주는 것이다. 반대로 갈퀴발도마뱀의 포식자인 뱀이 다가오면, 그 도마뱀은 사냥할 기운을 얻기 위해 움직이지 않았을 때의 경험을 되살려 호흡과 심장 박동을 일시적으로 멈추고 죽은 쉬늌을 한다. 갈퀴발 도마뱀은 모래속에 몸을 묻고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수분의 손실을 줄이고 사막 짐승들의 끊임없는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 ① 무스가 움직이지 않는 것은 생존을 위한 선택이다.
- ② 무스는 소화를 잘 시키기 위해 식물을 가려 먹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 ③ 갈퀴도마뱀은 움직이지 않는 방식으로 먹이를 구한다.
- ④ 갈퀴도마뱀은 모래 속에 몸을 묻을 때 생존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무스의 위는 ~ 섬유질이 많은 먹이를 소화하려면 꼼짝 않고 한곳에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것이다”로 보아, 무스는 소화를 잘 시키기 위해 식물을 가려 먹는 전략이 아니라, 움직이지 않는 전략을 선택한 것이므로 ②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먹이를 소화해 내야 생존할 수 있으므로 무스가 섬유질이 많은 먹이를 소화하기 위해 움직이지 않는 것은 생존을 위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③ · ④ 갈퀴발도마뱀이 모래 속에 몸을 묻고 움직이지 않는 것은 먹이를 사냥할 기운을 얻고 포식자로부터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맞는 설명이다.

8. (가)와 (나)를 비교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가) 문밖에 가랑비 오면 방 안은 큰비 오고 부엌에 불을 때면 천장은 굴뚝이요 흙 떨어진 윗대궁기 바람은 살쾅 듯이 들이붓고 틀만 남은 헌 문짝 명석으로 창과 문을 막고 방에 반듯 드러누워 가만히 바라보면 천장은 하늘별자리를 그려놓은 그림이요, 이십팔수(二十八宿)를 세어본다. 이렇게 곤란이 더욱 심할 제, 철모르는 자식들은 음식 노래로 조르는데, 아이고, 어머니! 나는 용미봉탕에 잣죽 좀 먹었으면 좋겠소.

(나) 한 달에 아홉 끼를 얻거나 못 얻거나
십 년 동안 갓 하나를 쓰거나 못 쓰거나
안표누공(顔瓢屨空)인들 나같이 비었으며
원헌(原憲)의 가난인들 나같이 심할까.
봄날이 길고 길어 소쩍새가 재촉커늘
동쪽 집에 따비 얻고 서쪽 집에 호미 얻어
집 안에 들어가 씨앗을 마련하니
올벼 씨 한 말은 반 넘어 쥐 먹었고

기장 피 조 팔은 서너 되 붙었거늘
많고 많은 식구 이리하여 어이 살리.

※윗대궁기: 나뭇가지 등으로 엮어 흠에 바른 벽에 생긴 구멍
안표누공(顔瓢屢空): 공자(孔子)의 제자 안회(顔回)의 표주박이 자주 빔.
원헌(原憲): 공자의 제자

- ① (가)와 달리 (나)는 읽을 때의 리듬이 규칙적이다.
② (가)와 (나)는 모두 상황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③ (가)와 (나)는 현재의 상황을 운명으로 수용하고 있다.
④ (가)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나)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정답 ①

해설 (가)는 작가 미상의 <흥부전>, (나)는 궁핍한 생활로 인한 고통과 걱정을 주제로 한 정훈의 <탄궁가>이다. (나)는 조선 시대 가사 작품으로 4음보를 취하고 있으므로 리듬이 규칙적이다. (가)는 산문인 고전 소설 작품으로, 규칙적 리듬을 취하고 있지는 않다.

*이십팔수(二十八宿): 천구(天球)를 황도(黃道)에 따라 스물여덟으로 등분한 구획. 또는 그 구획의 별자리

*용미봉탕(龍味鳳湯): 용과 봉황으로 만든 음식이라는 뜻으로, 맛이 매우 좋은 음식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오답 풀이 ② (가)가 상황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가)는 허름한 집의 모습을 ‘방 안은 큰비 오고,’ ‘천장은 굴뚝이오,’ ‘바람은 살 쏜 듯이 들이불고,’ ‘천장은 하늘별자리를 그려놓은 그림이요,’ 등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에 반해 (나)는 이웃에게 농기구를 빌려 농사를 지어야하는 처지이며 그 조차도 잘되지 않는 화자의 상황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③ (가)와 (나) 모두 현재의 상황을 운명으로 수용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나)의 “많고 많은 식구 이리하여 어이 살리” 등에서 알 수 있듯이 (나)의 화자는 가난을 한탄하고 있다.
④ (가)의 “이렇게 곤란이 더욱 심할 제”로 보아 (가)가 상황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나)의 “원헌의 가난인들 나같이 심할까”, “많고 많은 식구 이리하여 어이 살리” 등으로 보아 (나)는 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9. 다음 시조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마을 사람들어 옳은 일 하자스라
사람이 되어나서 올지못 못하면
마소를 갓 고깔 씌워 밥 먹이나 다르랴

- ① 鄉閭有禮
② 相扶相助
③ 兄友弟恭
④ 子弟有學

정답 ①

해설 제시된 시조는 정철의 <훈민가(訓民歌)> 중 제8수로, 사람이 옳은 일을 하지 못하면 마소나 다름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이 시조는 올바른 행동을 권유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鄉閭有禮(고향 향, 마을 려, 있을 윤, 예도 례)’라고 할 수 있다.

*鄉閭有禮(향려유례): 마을에는 예의(도리)가 있어야 함.

오답 풀이 ② 相扶相助(서로 상, 도울 분, 서로 상, 도울 조): 서로서로 도움.

- ③ 兄友弟恭(형 형, 벗 오, 아우 제, 공손할 공): 형은 아우를 사랑하고 동생은 형을 공경한다는 뜻으로, 형제간에 서로 우애 깊게 지냄을 이르는 말.
④ 子弟有學(아들 자, 아우 제, 있을 윤, 배울 학): 자녀들에게 학문을 권장함.

*보충 자료: 정철, 〈훈민가(訓民歌)〉

〈훈민가〉는 송강 정철이 45세 때 강원도 관찰사로서 도민을 교화하기 위해 지은 16수의 연시조이다. 이 작품은 계몽적, 교훈적 노래이면서도 현실적 청자인 백성들이 이해하고 접근하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중국 문학에서 차용한 한자나 한문 대신, 완곡한 명령이나 청유형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그 결과 ‘훈민(訓民)’이라는 목적의식에서 지어진 시조들 가운데 가장 설득력 있고, 친근감을 주는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훈민가〉의 전체 구성을 다음과 같다.

- 제1수: 부의모자(父義母慈). 부생모육(父生母育: 부모가 낳고 기름)의 은혜에 대한 보답
- 제2수: 형우제공(兄友弟恭). 형제간의 우애
- 제3수: 군신(君臣). 임금과 백성의 관계와 부모님의 배려
- 제4수: 자효(子孝). 부모님에 대한 효도 권유
- 제5수: 부부유은(夫婦有恩). 부부는 일심동체이자 상호간의 존경의 대상
- 제6수: 남녀유별(男女有別). 남녀 간의 예의범절
- 제7수: 자제유학(子弟有學). 자녀들에게 학문 권장
- 제8수: 향려유례(鄉閭有禮). 올바른 행동 권유
- 제9수: 장유유서(長幼有序). 어른을 공경하는 태도
- 제10수: 봉우유신(朋友有信). 올바른 벗의 관계
- 제11수: 빈궁우환(貧窮憂患). 어려울 때의 상부상조
- 제12수: 혼인사상 인리상조(婚姻死喪隣里相助). 애경사(哀慶事)에 대한 상부상조
- 제13수: 무타농상(無惰農桑). 농사일에 상부상조
- 제14수: 무작도적(無作盜賊).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말 것
- 제15수: 무학도박(無學賭博), 무호쟁송(無好爭訟). 도박과 송사를 금함.
- 제16수: 반백자불부대(班白者不負戴). 경로사상(敬老思想)의 강조

10. ㉠, ㉡에 들어갈 한자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근무 여건이 개선(㉠) 되자 업무 효율이 크게 올랐다.
- 금융 당국은 새로운 통화(㉡) 정책을 제안하였다.

㉠ ㉡

- ① 改善 通貨
- ② 改選 通話
- ③ 改善 通話
- ④ 改選 通貨

정답 ①

해설 ㉠ ‘잘못된 것이나 부족한 것, 나쁜 것 따위를 고쳐 더 좋게 만듦’을 뜻하는 ‘改善(고칠 개, 착할 선)’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

㉡ ‘유통 수단이나 지불 수단으로서 기능하는 화폐’를 뜻하는 ‘통화’는 ‘通貨(통할 통, 재물 화)’로 쓴다.

오답 풀이 ㉠ 改選(고칠 개, 뽑을 선): 의원이나 임원 등이 사퇴하거나 그 임기가 다 되었을 때 새로 선출함.

㉡ 通話(통할 통, 말씀 화): 전화로 말을 주고받음. / 통화한 횟수를 세는 말

11. 다음 글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사람은?

심리학에서는 동조(同調)가 일어나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한다. 첫째는, 사람들은 자기가 확실히 알지 못하는 일에 대해 남이 하는 대로 따라 하면 적어도 손해를 보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어떤 집단이 그 구성원들을 이끌어 나가는 질서나 규범 같은 힘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러한 집단의 압력 때문에 동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만약 어떤 개인이 그 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는 집단에서 배척당하기 쉽다. 이런 사정 때문에 사람들은 집단으로부터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동조를 하게 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자신이 믿지 않거나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동조의 입장을 취하게 된다는 것이다.

동조는 개인의 심리 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이나에 따라 그 강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또한 집단의 구성원 수가 많거나 그 결속력이 강할 때, 특정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의 권위와 지위, 그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 때도 동조 현상은 강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어떤 문제에 대한 집단 구성원들의 만장일치 여부도 동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만약 이때 단 한명이라도 이탈자가 생기면 동조의 정도는 급격히 악화된다.

- ① 영희: 줄 서기의 경우, 줄을 서 있는 사람이 많을수록 나중에 오는 사람들이 그 줄 뒤에 설 확률이 더 높아.
- ② 철수: 특히 응집력이 강한 집단에 항거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야. 이런 경우, 동조 압력은 더 강할 수밖에 없겠지.
- ③ 갑순: 동조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우매한 조직의 결속력보다 개인의 신념이라고 볼 수 있겠군.
- ④ 갑돌: 아침에 수많은 정류장 중 어디에서 공항버스를 타야 할지 몰랐는데 스텀어디스 차림의 여성이 향하는 정류장 쪽으로 따라갔었어, 이 경우, 그 스텀어디스 복장이 신뢰도를 높였다고 할 수 있겠네.

정답 ③

해설 동조 현상은 집단의 결속력이 강할 때 강하게 나타나지만, 동조 현상에 미치는 요인을 서로 비교하여 그 강도의 차이를 가늠하는 내용은 없으므로 ③은 잘못된 이해이다. 또한 ‘우매한 조직’에 대해 언급한 내용은 없다.

오답 풀이 ① 두 번째 단락의, 집단의 구성원 수가 많을수록 동조 현상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내용에서 알 수 있다.

② 첫 번째 단락의 “둘째는, 어떤 집단이 그 구성원들을~집단의 압력 때문에 동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만약 어떤 개인이~그는 집단에서 배척당하기 쉽다. 이런 사정 때문에~동조를 하게 된다”에서 알 수 있다. (두 번째 단락의 내용에서 알 수 있다)

④ 두 번째 단락의 “정보가 부족하여 어떤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일수록”, “특정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의 권위와 지위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 때” 동조 현상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내용에서 알 수 있다.

12. 다음 대화 상황에서 의사소통에 장애가 일어났다고 한다면, 그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교사: 동아리 보고서를 오늘까지 내라고 하지 않았니?

학생1: 네, 선생님. 다정이가 다 가지고 있는데, 아직 안 왔어요.

교사: 이거, 큰일이네. 오늘이 마감인데.

학생1: 그러게요. 큰일이네요. 다정이가 집에도 없는 것 같아요.

학생2: 어떡해? 다정이 때문에 우리 모두 점수 깎이는 거 아니야? 네가 동아리 회장이니깐 네가 책임져.

학생1: 아니, 뭐라고? 다정이가 보고서 작성하기로 지난 회의에서 결정한 거잖아.

교사: 자, 그만들 해. 이럴 때가 아니잖아. 어서 빨리 다정이한테 연락이나 해 봐. 지금 누구 잘못을 따질 상황이 아니야.

학생3: 제가 다정이 연락처를 아니까 연락해 볼게요.

- ① 교사가 권위적인 태도로 상황을 무마하려 하고 있다.
- ② 학생1이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변명으로 일관함으로써 의사소통이 단절되고 있다.
- ③ 학생2가 대화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끼어들어 책임을 언급함으로써 갈등이 생겨나고 있다.
- ④ 학생3이 본질과 관계없는 말을 언급함으로써 상황을 무마하려고 하고 있다.

정답 ③

해설 대화 상황과 대화자들의 말하기 방식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학생2는, 동아리의 보고서를 가진 다정의 행방이 묘연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는 맥락에서, 학생1의 책임을 언급하여 학생1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③이 가장 적절한 설명이다.

- 오답 풀이 ① 교사는 학생들의 싸움을 저지하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② 학생 1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고 있을 뿐, 책임을 면하기 위해 변명하고 있지 않다.

13. 화자의 진정한 발화 의도를 파악할 때, 밑줄 친 부분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일상 대화에서는 직접 발화보다는 간접 발화가 더 많이 사용되지만, 그 의미는 맥락에 의해 파악될 수 있다. 화자는 상대방이 충분히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간접 발화를 전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의사소통을 원활하게하기도 한다.

- ① (친한 사이에서 돈을 빌릴 때) 돈 가진 것 좀 있니?
② (창문을 열고 싶을 때) 애야, 방이 너무 더운 것 같구나.
③ (갈림길에서 방향을 물을 때) 김포공항은 어느 쪽으로 가야 합니까?
④ (선생님이 과제를 내주고 독려할 때) 우리 반 학생들은 선생님 말씀을 아주 잘 듣습니다.

정답 ③

해설 직접 발화와 간접 발화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맥락’을 고려하여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직접 발화이다. 직접 발화는 문장 유형과 발화 의도가 일치하는 문장이므로 이를 골라야 한다. ③은 발화의 의도(공항의 방향을 묻고 싶음)와 공항의 방향을 묻는 의문문인 문장 유형이 일치하는 직접 발화이다. 나머지 ①, ②, ④는 문장 유형과 발화 의도가 일치하지 않는 간접 발화에 해당한다.

14. 띄어쓰기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줄지에 부도를 맞았더니 참 안됐어.
•그렇게 독선적으로 일을 처리하면 안 돼.
② •그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니 걱정하지 말게.
•지금 네가 본 것은 실상의 절반에도 못 미쳐.
③ •저 집은 부부 간에 금실이 좋아.
•집을 살 때 부모님이 얼마간을 보태 주셨어.
④ •저 사람은 아무래도 믿을 만한 인물이 아니야.
•지난번 해일이 밀어닥칠 때 집채만 한 파도가 해변을 덮쳤다.

정답 ③

해설 •부부√간(×) → 부부간(○): ‘부부간’은 한 단어이므로 붙여 쓴다.

•얼마간을(○): ‘얼마간’은 ‘그리 많지 아니한 수량이나 정도 / 그리 길지 아니한 시간 동안’을 나타내는 명사이므로 붙여 쓴다.

오답 풀이 ① •안됐어(○): ‘안되다’가 ‘섭섭하거나 가엾어 마음이 언짢다’의 의미인 형용사로 쓰였으므로 붙여 쓴다.

•안√돼(○): ‘안’이 ‘아니’를 뜻하는 부정 부사로 쓰일 때에는 띄어 쓴다.

② •아무것도(○): ‘아무것’은 ‘특별히 정해지지 않은 어떤 것 일체 / 대단하거나 특별한 어떤 것’을 뜻하는 한 단어이므로 붙여 쓴다.

•본√것(○): ‘것’은 ‘사물, 일, 현상 따위를 추상적으로 이르는 말 / 사람을 낮추어 이르거나 동물을 이르는 말’ 등으로 쓰이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못√미쳐(○): ‘못미치다’는 한 단어가 아니고, ‘못’은 부정의 뜻을 나타내는 부사로 쓰였으므로 띄어 쓴다.

④ •믿을√만한(○): ‘만하다’는 보조 형용사이므로 본용언과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고 ‘믿을만한’과 같이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한다.

•지난번(○): ‘지난번’은 한 단어이므로 붙여 쓴다.

•집채만▽한(○): 이때 ‘만’은 앞말이 나타내는 대상이나 내용 정도에 달함을 나타내는 보조사로 쓰인 것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또한 뒤의 ‘한’은 ‘하다’의 활용형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15. 어법에 어긋나는 문장을 수정하고 설명한 예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철 내에서 뛰지 말고, 문에 기대거나 강제로 열려고 하지 마십시오.

→ ‘열다’는 타동사이므로 ‘강제로’와 ‘열려고’ 사이에 목적어 ‘문을’을 보충하여야 한다.

② ○○시에서 급증하는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임

→ 생활용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것이지 생활용수가 급증하는 것이 아니므로, ‘급증하는 생활용수의 수요에 대응하여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로 고쳐야 한다.

③ 사고 원인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 ‘사고 원인 파악을 마련하여’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앞의 명사구를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로 고쳐 절과 절의 접속으로 바꾸어야 한다.

④ 도량형은 미터법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각종 증빙 서류 등을 미터법 이외의 도량형으로 작성할 경우 미터법으로 환산한 수치를 병기함

→ ‘하되’는 앞뒤 문장의 내용을 연결하는 어미로 적합하지 않으므로 ‘하며’로 고쳐야 한다.

정답 ④

해설 ‘-되’는 ‘대립적인 사실을 잇는 데 쓰는 연결 어미 / 어떤 사실을 서술하면서 그와 관련된 조건이나 세부 사항을 뒤에 덧붙이는 뜻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로 바르게 쓰였으므로 고칠 필요가 없다. 나머지는 모두 올바르게 고친 경우이다.

16. 다음 <한글 맞춤법> 규정의 예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제19항 어간에 ‘-이’나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이’나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나) 제19항 [붙임] 어간에 ‘-이’나 ‘-음’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다) 제 20항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라) 제20항 [붙임] ‘-이’-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① (가): 미달이, 졸음, 익히

② (나): 마개, 마감, 지붕

③ (다): 육손이, 집집이, 곰배팔이

④ (라): 끄트머리, 바가지, 이파리

정답 ②

해설 (나)는 ‘어간’에 접사가 붙어 파생된 단어에 대한 항이다. 그런데 ‘지붕(집+웅)’은 명사 ‘집’ 뒤에 ‘-이’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의 예이므로 (라)의 예에 해당한다. ‘마개(막+애)’, ‘마감(막+암)’은 (나)의 예로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가) ‘미달이’는 어간에 ‘-이’가 붙어서 명사로 된 것의 예이고, ‘졸음’은 어간에 ‘-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예, ‘익히’는 어간에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의 예에 해당한다.

③ (다) ‘육손이’, ‘곰배팔이’는 명사 뒤에 ‘-이’가 붙어 명사가 된 예이고, ‘집집이’는 명사 뒤에 ‘-이’가 붙어 부사로 된 것의 예에 해당한다.

④ (라) ‘끄트머리’, ‘바가지’, ‘이파리’는 모두 ‘-이’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 된 말의 예에 해당한다.

17. 발음 기관에 따라 ‘아음(牙音)’, ‘설음(舌音)’, ‘순음(脣音)’, ‘치음(齒音)’, ‘후음(喉音)’으로 구별하고 있는 훈민정음의 자음 체계를 참조할 때, 다음 휴대 전화의 자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ㄱ ㅋ	ㅣ ㅡ	ㅏ ㅑ
ㄷ ㅌ	ㄴ ㄹ	ㅓ ㅕ
ㅁ ㅂ	ㅈ ㅊ	ㅗ ㅛ
ㅅ ㅆ	ㅇ ㅎ	ㅜ ㅠ

- ① 훈민정음의 자음 체계에 따른다면, ‘ㅅ’은 ‘ㅈ ㅊ’ 칸에 함께 배치할 수 있다.
 ② ‘ㅁ ㅂ’ 칸은 조음 위치와 조음 방식의 양면을 모두 고려하여 같은 성질의 소리끼리 묶은 것이다.
 ③ ‘ㄷ ㅌ’과 ‘ㄴ ㄹ’ 칸은 훈민정음 창제 당시 적용된 가획 등의 원리에 따른 제자 순서보다 소리의 유사성을 중시하여 배치한 것이다.
 ④ 훈민정음의 자음 체계에서 ‘ㅇ’과 ‘ㅎ’은 구별되었다. 훈민정음의 자음 체계에 따른다면, 이 중에서 ‘ㅇ’은 ‘ㄱ ㅋ’ 칸에 함께 배치할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ㅁ’과 ‘ㅂ’은 훈민정음의 자음 체계상 ‘ㅁ’은 순음이고 ‘ㅂ’은 치음이므로 조음 위치가 같지 않다. 또한 조음 방식 상으로도 ‘ㅁ’은 울림소리이고 ‘ㅂ’은 안울림소리이므로 같지 않다. 따라서 ‘ㅁ’, ‘ㅂ’을 조음 위치와 방식 양면을 모두 고려하여 같은 성질로 묶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훈민정음의 자음 체계를 고려하면, ‘ㅅ’은 ‘ㅈ, ㅊ’ 칸으로 옮겨야 한다.

오답 풀이 ① 훈민정음의 자음 체계상 치음의 기본자는 ‘ㅅ’이고 이의 가획자가 ‘ㅈ, ㅊ’이므로, 이를 함께 배치할 수 있다.

③ 훈민정음 자음 체계상 설음의 기본자 ‘ㄴ’의 가획자는 ‘ㄷ’과 ‘ㅌ’이고, ‘ㄹ’은 이의 이체자이다. 따라서 자판에서 ‘ㄷ, ㅌ’과 ‘ㄴ, ㄹ’을 함께 배치한 것은 제자 순서를 따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것은 ‘ㄷ, ㅌ’은 파열음이고 ‘ㄴ, ㄹ’은 울림소리라는 소리의 유사성을 따라 배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훈민정음의 자음 체계상, ‘ㅇ’은 후음이고 ‘ㅎ’은 아음이다. 아음의 기본자는 ‘ㄱ’이고 이의 가획자가 ‘ㅋ’, 이체자가 ‘ㅇ’이므로 ‘ㅇ’을 ‘ㄱ, ㅋ’ 칸에 함께 배치할 수 있을 것이다.

18. 다음 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덕기는 분명히 조부의 이런 목소리를 들은 법하다. 꿈이 아니었던가 하며 소스라쳐 깨어 눈을 떠보니 머리맡 창에 별이 뽀뽀히 비친 것이 어느덧 저녁때가 된 것 같다. 벌써 새로 세시가 넘었다. 아침 먹고 나오는 길로 따뜻한 데 누웠으려니까 잠이 폭폭 왔던 것이다. 어쨌든 머리를 쳐드니, 인제는 거뜬하고 몸도 풀린 것 같다.

“네 처두 목으라고 하였다만 모래는 너두 들를 테냐? 들르면 무얼 하느냐마는…….”

조부의 못마땅해하는, 어떻게 들으면 말을 만들어 보려고 짓궂이 비꼬는 강강한 어투가 또 들린다.

덕기는 부친이 왔나 보다 하고 가만히 유리 구멍으로 내다보았다. 수달피 깃을 댄 검정 외투를 입은 훌쩍한 뒷모양이 뜰을 격하여 뒷마루 앞에 보이고 조부가 문을 닫은 뒤에 나가리라 하고 주저앉았다.

“저야 오지요마는 덕기는 불드실 게 무엇 있습니까. 공부하는 애는 그보다 더한 일이 있더라도 날자를 대서 하루 바빠 보내야지요…….”

이것은 부친의 소리다. 부친은 가냘프고 신경질적인 체격 보아서는 목소리라든지 느리게 하는 어조가 펍 판판인 인상을 주는 것이었다.

- 염상섭, <삼대>

- ①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시선을 빌려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② 시대적 배경과 밀접한 어휘를 사용하여 주제 의식을 강화하고 있다.

- ③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인물들에 대한 서술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④ 공간적 배경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상황을 입체적으로 그리고 있다.

정답 ①

해설 이 글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쓰였다. 서술자는 등장인물인 덕기의 시선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즉 ‘잠에서 깨어남 → 유리 구멍으로 밖을 내다보고 조부와 부친의 대화를 들음’은 모두 덕기의 시선에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이다.

오답 풀이 ②·③ 시대적 배경과 밀접한 어휘나, 편집자적 논평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④ 전지적 서술자의 일관된 서술로 전개되므로, 서술자가 바뀐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19. 다음 조건을 모두 참조하여 쓴 글은?

- 대구(對句)의 기법을 사용할 것
- 삶에 대한 통찰을 우의적으로 표현할 것

- ① 낙엽: 낙엽은 항상 패배한다. 시간이 지나고 낙엽이 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계절의 객석에 슬픔과 추위가 찾아온다. 하지만 이 패배가 없더라면, 어떻게 봄의 승리가 가능할 것인가.
- ② 비: 프랑스로 ‘비가 내린다’는 한 단어라고 한다. 내리는 것은 비의 숙명인 것이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비는 주룩주룩 내리고, 토끼는 강충강충 뛴다. 자연은 모두 한 단어이다. 우리의 삶도 자연을 닮는다면 어떨까.
- ③ 하늘: 하늘은 언젠가 자기 얼굴이 알고 싶었다. 하지만 어디에도 자신을 비춰줄 만큼 큰 거울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다 어느 날 어떤 소녀를 발견했다. 포근한 얼굴로 자신을 바라보는 소녀의 눈동자를 하늘은 바라보았다. 거기 에 자신이 있었다.
- ④ 새: 높이 나는 새는 낮게 나는 새를 놀려 댔다. “어째서 그대는 멀리 보는 것을 선택하지 않는가? 기껏 날개가 있는 존재로 태어났는데.” 그러자 낮게 나는 새다 대답했다. “높은 곳의 구름은 멀리르 바라보고, 낮은 곳의 산은 세심히 보듬는다네.”

정답 ④

해설 “높은 곳의 구름은 멀리르 바라보고, 낮은 곳의 산은 세심히 보듬는다네”에 대구의 기법이 사용되었다. 이것은 ‘모든 존재는 어디에 있든 그곳에서 나름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정도의 통찰을 ‘구름’과 ‘산’에 빗대어 우의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통찰(洞察): 예리한 관찰력으로 사물을 꿰뚫어 봄.

*우의(寓意): 다른 사물에 빗대어 비유적인 뜻을 나타내거나 풍자함. 또는 그런 의미

20. 다음 글에서 알 수 없는 것은?

소설의 출현은 사적 생활이라는 개념의 출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소설 읽기와 쓰기에 있어 사적 생활은 필수적인 까닭이다. 어쩌면 사적 생산과 소비 형태 탓에 사생활은 소설이라는 장르의 태동 때부터 소설의 중심 주제였는지도 모른다. 혹은 이와는 반대로 사적 경험이라는 비교적 새로운 개념을 탐색해야 할 필요 탓에 소설이 생긴 것인지도 모른다. …… 사적 공간은 개인, 가족, 친구, 그리고 자기 자신 등과의 교류에 필요한 은밀한 공간이 실제 생활 속에 구현되도록 도왔다. 자기만의 내적인 것에 대한 추구는 사람들의 이상이 되었고 점점 그 중요성이 커지면서 사람들의 존재 방식과 글쓰기 행태에 변화를 요구하였다.

이전의 지배적 문학 형태인 서사시, 서정시, 희곡 등과는 달리 소설은 낭독하는 전통이 없었다. 또한 낭독을 이상으로 삼지도 않고, 청중의 참여를 전제로 하지도 않았다. 소설 장르는 여럿이 함께 모여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청중 개념의 붕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19세기는 르네상스 시대와 17세기와는 달리 공통의 규범과 가치를 나누는 단일 사회가 아니었다. 따라서 청중이 한자리에 모여 동일한 가치를 나누는 일이 점차 불가능해졌다. 혼자 소리 내지 않고

책을 읽기 시작했다는 것은 사람들이 이미 사적 생활에 상당한 의미를 두게 되었음을 뜻한다. ……

이러한 사적 경험으로서의 책 읽기에 대응되어 나타난 것이 사적인 글쓰기였다. 사적으로 글을 쓸 경우 작가는 이야기꾼, 음유 시인, 극작가들과 달리 청중들로부터 아무런 즉각적 반응도 얻을 수 없다. 인류학자, 언어학자들에 의하면 언어의 의미는 그것을 쓸 대의 상황에 크게 좌우된다고 한다. 그러나 글쓰기, 그중에서도 특히 인쇄에 의해 복제된 글쓰기는 작가에게서 떨어져 나와 결국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는 자율적 담론을 창조하게 되었다.

- ① 사적인 글쓰기의 출현으로 작가는 독자와 직접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
- ② 자기만의 내적인 것에 대한 추구가 새로운 형태의 글쓰기를 요구하였다.
- ③ 소설은 사적 공간에서의 책 읽기와 글쓰기가 가능해진 시기에 출현하였다.
- ④ 희곡작가는 낭독을 통해 청중들과 교류하며 공통의 규범과 가치를 나누고자 하였다.

정답 ①

해설 제시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이다.

마지막 단락을 보면, ‘소설’과 연관된 사적인 글쓰기에서 작가는 청중의 즉각적인 반응을 얻을 수 없으므로, ‘사적인 글쓰기의 출현으로 작가는 독자와 직접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는 ①은 적절하지 않다. 즉 글쓴이는, 소설이 사적 생활이라는 개념의 출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하면서, 청중과의 소통을 전제로 하는 희곡 등과 소설을 대비하고 있다. 즉 소설 장르는 “청중 개념의 붕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

오답 풀이 ② 첫 번째 단락의 “자기만의 내적인 것에 대한 추구는 ~ 글쓰기 형태에 변화를 요구하였다”에서 알 수 있다.

- ③ 첫 번째 단락의 “소설의 출현은 사적 생활이라는 개념의 출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소설 읽기와 쓰기에 있어 사적 생활은 필수적”, “사적 공간은 ~ 은밀한 공간이 실제 생활 속에 구현되도록 도왔다”에서 알 수 있다.
- ④ 두 번째, 마지막 단락에서 소설(소설의 작가)과 희곡(희곡 작가)을 대비하고 있다. 즉 소설은 낭독하는 전통도 없고 청중의 참여를 전제로 하지 않았으며, 공통의 규범과 가치를 나누는 단일 사회에서 출현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이와 대비되는 희곡의 작가는 낭독을 통해 청중들과 교류하며 공통의 규범과 가치를 나누고자 했을 것이다.